

만사대평

2017년
4월호

깡깡이마을 생활문화센터 오픈!



이달의
1면



1. 리모델링을 마친 구 대평동사무소 건물 전경 2. 대평경로당(1층) 3-1. 생활문화센터 로비(2층) 3-2. 생활문화센터 동아리실(2층)

잠깐 상식 - 구 대평동사무소 건물의 역사

본래 대평동 동사무소는 대평로 34번길 5-18에 위치한 2층짜리 목조건물이었습니다.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이전(移轉)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영도구청에서 20평을 매입하고 대평동 마을유지분들께서 마을회 땅 20평을 구청에 기증하여 40평짜리 3층 건물로 완공해 1998년까지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이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구 대평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구 대평동사무소 건물이 지난 2월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을 멋지게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대평경로당, 3층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 특별한 공간은 2층 생활문화센터입니다. 2층 한 편에는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고, 로비 공간에는 커다란 책상과 책장을 두어 주민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습니다. 2층 안쪽 넓은 공간은 마을해설사 동아리, 마을정원사 동아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아리실로 만들었습니다. (* 마을동아리 소식은 2면에서 계속)

앞으로 마을 주민들께서 생활문화센터를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셔서 이곳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소통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우리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해설하자!
마을해설사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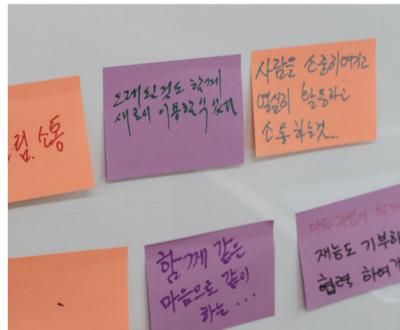
지난 3월 7일 월요일, 마을해설사 동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마을 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 강연을 듣고 함께 음악을 듣는 방식으로 문화사랑방이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신청해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첫날에는 평크로더 양화니 대표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평크로더’는 여행사라고 합니다. 평크로더 분들이 앞으로 10주 동안 진행될 마을해설사 동아리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양화니 대표님이 10주간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총 14명의 마을해설사 동아리 신청자 중 첫날에는 11명이나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4일 마을해설사 동아리 두 번째 시간에는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지영 사무국장님(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민간협의체)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허지영 사무국장님께서는 마을해설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크게는 마을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을해설사 동아리에 참석한 분께 어떤 이유에서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지 물어보니 한 마을주민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깡깡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기 위해 왔다. 깡깡이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대평동에 오래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한 분께선 “최근 마을이 새롭게 태어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워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도구 영선동에 살고 있다는 한 분은 “마을해설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고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14명의 신청자들이 모두 끝까지 강연이 참석해 깡깡이마을에 대해 배우고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알릴 수 있는 멋진 해설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글·이종렬 주민기자



▲ 두 번째 마을해설사 동아리 시간에 참석자 분들이 작성한 내용



▲ 첫날 마을해설사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깡깡이마을에
초록바람을
일으키자!
마을정원사
동아리**

3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50분 무렵, 깡깡이예술마을 생활문화센터로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을정원사 동아리가 열리는 날입니다.

100% 자발적인 신청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동아리 회원은 총 14명. 모두 마을을 제 손으로 가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마을정원사 동아리 프로그램 진행은 가치예술협동조합 김정주 대표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첫날 김정주 대표님은 앞으로 마을정원사 동아리가 하게 될 활동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분들과 함께 마을에 녹지를 조성하는 골목정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8동에 있는 쌈지공원도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3월 중순이 되니 바람에 찬기가 가시고 땅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마을정원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마을정원사 동아리는 3월부터 6월초까지 12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좌 및 화분 제작과 설치, 나무 및 화초 가꾸기 작업 등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에 세워질 주요 건물이나 상징물 주변에다, 쌈지공원에다, 거리에다, 그리고 동아리실이 있는 생활문화센터 옥상에도 나무나 화초를 심을 예정입니다. 마을 정원사로 활동할 주민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며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치예술협동조합의 김정주 대표님께서는 “참석하신 분들께서 당장 다음 주부터 뭔가를 만들어보자고 하시더라. 의욕을 보여주시니 진행하는 입장에서 힘이 난다”며 첫 수업을 마치고 난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을정원사 동아리 분들로 인해 깡깡이마을에도 초록빛깔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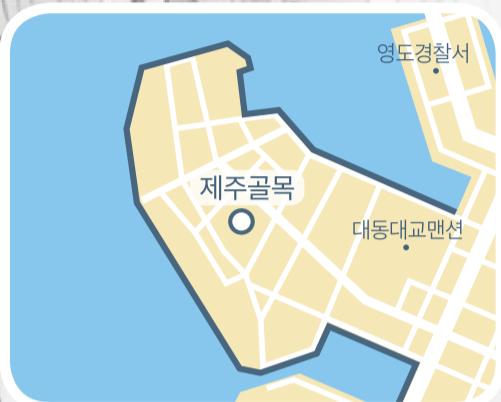
▲ 마을정원사 동아리 참여 주민 분이 만든 화분



▲ 손수 화분을 만들고 있는 마을정원사 동아리 참석자 분들

섬에서 나와 또 다른 섬으로, 영도 대평동 제주골목 이야기 2

* 3월호 「섬에서 나와 또 다른 섬으로, 영도 대평동 제주골목 이야기 1」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제주골목 풍경

어깨를 스치며 다니던 제주골목

제주골목은 골목길이 좁고 구불구불해 마치 미로처럼 생겼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남자인 저조차도 몸이 움츠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부터 제주골목에 살았다는 홍정자 어르신은 예전엔 빈집이 하나도 없었고 다 고향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1967년 지금의 대동대교맨션이 있는 자리에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당시 미군들이 무서워서 늦은 저녁엔 제주골목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주골목에서의 삶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주골목의 집들은 ‘하꼬방(단칸방)’이라 불릴 만큼 비좁았습니다. 가득 찬 세간 때문에 세 사람이 앉는 것도 비좁을 정도였고, 수리조선소와 가깝다보니 소음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김진두 어르신은 1975년 처음 동네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수도 시설이 없어서 물지게를 지고 오던 장사꾼으로부터 물을 사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 지금 골목엔 낙엽만 튕굴고 있습니다. 김진두 어르신은 하나 둘 떠나간 이웃들이 떠오르거나 전과는 너무 달라진 골목을 바라보노라면 웬지 모를 섭섭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골목에 보이지 않게 새겨진 ‘제주’라는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남은 생을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제주골목에서 보내겠다 말하십니다. 집안 한편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정자 어르신은 이곳에서 손자를 업어 키웠고, 물질을 하며 번 돈으로 집을 새로 짓고, 살림살이를 채워나갔습니다. 더욱이 김진두 어르신에게 제주골목은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본 곳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사람이 하늘로 돌아갔어. 단 둘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며 마주한 골목은 더 이상 쓸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을 비롯해 제주골목에서 살다간 이들의 추억이 골목 곳곳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목 곳곳에 보이지 않게 새겨진 ‘제주’라는 이름이 있어 제주도 사람 하나 남지 않는다 해도 이 골목은 영원히 ‘제주골목’으로 남지 않을까하는 예감이 줄곧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글 및 사진·김수영 객원기자(한국해양대학교 4)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장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장(腸)은 장기 중에서 면역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면역기관으로 제 2의 뇌라고도 하며, 행복물질인 세로토닌도 생성하는 장기입니다. 장 속의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음식을 잘 섭취하여 장내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 어주면 세로토닌 물질이 많이 생성되어 행복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져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지키고, 장에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 및 그림·이춘옥 주민기자

장 건강법

- 복부를 따뜻하게 할 것 (핫팩을 수시로 사용해도 좋음)
- 기상하는 즉시 볼일을 볼 것
- 복식호흡 등으로 복부근육을 키울 것(풍선불기도 효과적)
- 취침 시 왼편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장의 근육을 느슨하게 할 것
- 장에 좋은 음식인 바나나, 사과, 양배추, 양파,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등을 꾸준히 먹을 것



대를 이어 71년, 깜깜이마을 수리조선의 역사를 쓰다

영도조선 이문환 사장(64)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월 1일, 일본이 남기고 간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같은 이름으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 바로 '영도조선'인데요. 가업을 잇는다는 정신으로 아버지, 큰형에 이어 조선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영도조선의 이문환 사장님을 만나 봤습니다.



아씨정·비지금

영도조선이 창립 71주년을 맞았다고 하던 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올해 1월 1일이 정확히 71주년 된 날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웃음) 1946년 1월 1일이 영도조선 창립 기념일입니다. 아버님(故 이동식 회장)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영도조선이라는 이름으로 71년간 쭉 이어왔습니다.

1946년이면 해방 이듬해인데요.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조선소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8월 15일이 광복일이니까 그 이듬해 1월에 창립한 것이니 해방 직후에 사업을 준비하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기에 조선소가 쭉 있었거든요. 그 조선소들을 거의 다 일본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쫓겨 가고 난 뒤에 한 분이 대평동에 있던 조선소 몇 개를 잡아두었는데, 아버지가 그분한테 조선소를 아주 헐값으로 샀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선소를 운영하신 것을 시작으로 영도조선의 역사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셈인데요. 이문환 사장님께서 영도조선을 운영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1967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 형님(故 이명환 사장)께서 하시다가 형님께서 병환으로 몸이 안 좋아지셔서 1999년도에 제가 영도조선 운영을 맡았습니다.

형님께서 운영하실 때는 형님 밑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영업도 하고 배 수리일도 따오고 수리도 했습니다. 제가 올해 18년째 맡아서 하고 있네요. 그때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지금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분위기 같은 걸 빨리 알 수 있거든요. 현장일이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 힘드신 것도 알고요.



▲ 약 12년전 영도조선 전경(2005년)

아버지께서 조선소를 운영하실 때 어디에 사셨나요?

태어나서부터 줄곧 대평동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소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이 사는 건물에는 직원들이 지낼 수 있는 방도 두 칸 더 있었습니다. 조선소에 와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편히 먹고 살라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사택에서 살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부엌이 참 컸습니다. 조선소 일이 힘들고 금세 허기가 지는 일이라며 어머니께서 집에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 두 분과 함께 하루 두 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새참을 나오셨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감자, 고구마, 밀가루에 완두콩을 넣어 빻처럼 부풀린 걸 가마솥에다가 여러 번 찌는 걸 봤죠. 국수도 수십 인분 말아주셨습니다. 일도 힘든데 잘 먹어야 한다며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분들 드시는 데에는 절대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대평동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 몇 집 없었는데 그나마 저녁 9시가 되면 급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원 분들이 물을 마음껏 쓰시도록 시멘트로 된 수조에다가 잔뜩 받아놓으셨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것은 동네 분들이 퍼가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밤늦게 까지 조선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도둑도 별로 없었고요. 초창기에는 조선소에 경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사장님께서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쌀이나 연탄을 기부하시는가 하면, 모교인 해동고등학교나 영도 행복장학금에도 큰 금액을 기부하실 정도로 나눔에 앞장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마을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머니께서 해오시던 모습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그맣고 고우신데 성격은 완전히 여장부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돋거나 나누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사택에서 직원 분들도 함께 생활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직원 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배 올리고 내리고 하는 상가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페인트칠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본공이었습니다. 본공은 일당공이 아니고 정식 직원이었다는 말인데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부다 목수였습니다. 1960년 전까지는 전부 목선이었습니다. 목수 분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와서 일하고 일이 없으면 다른데 가서 일하곤 했습니다. 그 때도 지금도 우리는 엔진 수리는 안했습니다. 엔진은 전문 철공소가 담당합니다. 저희는 주로 선체 수리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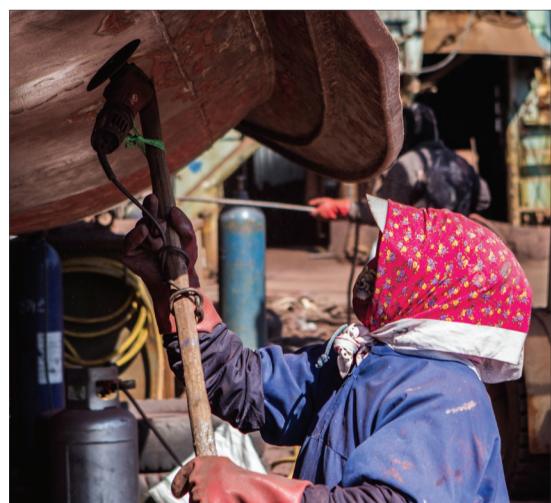


▲ 선박이 올라가는 '선대'를 수리하는 모습(1987년)

요즘 대평동이 '깡깡이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주로 목선이었던 1960년대 전까지는 깡깡이가 없었겠네요?

깡깡이는 6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목선 나오다가 목강선이 나오다가, 지금처럼 철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배를 올리는 레일의 무게나 크기도 바뀌었고요. '깡깡'하는 소리도 그때부터 마을에서 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70~80년대에는 주로 국내외 선적을 가진 참치배(마구로배)나 명태 원양 트롤선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조선소로 오면 깡깡이를 하고, 상태 나쁜 철판을 갈고, 새로 페인트칠을 해서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가 작아서 한 선대에다 배를 두 척씩 올리곤 했는데 그때 깡깡이질을 하



▲ 지금은 망치 대신 그라인더로 깡깡이 작업을 하는 깡깡이 아주머니들

시는 분들이 하루에 40~60명씩 있었습니다. 다 여자 분들이었고요 간혹 한 명씩 남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깡깡이질을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평동 주민 분들이었습니다.

마을 분들께서 대평동 수리조선소는 70~80년대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하시던데요. 어느 정도였나요?

예전에는 배를 서로 옮겨주라고 선수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다른 조선소의 선대를 빌려서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려받고 난 후에도 3~4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난 후에 어장이 많이 줄고 어선도 감척되고 하다 보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한 달에 10척 정도. 1년에 110~120척 정도 수리를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3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5~6년 전만해도 러시아 배 때문에 호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선박이 줄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국내선을 수리하고 겨울동안은 러시아 배를 수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대평동은 괜찮은 편입니다.

71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부침도 있으셨겠지만 잘 견뎌 오늘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군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영도조선을 보며 좀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가져왔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큰 배도 옮겨보고 싶고요. 내가 못하면 자식들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

이 있습니다.

대평동 주민 분들이 계셔서 조선소가 잘 유지되고 돌아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 분들께서 조선소 사정을 많이 이해해주십니다. 그래도 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7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동네 분들이 깡깡이를 하셨는데 요즘은 연세가 있으셔서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 분들이 살아가는데 더 이상 조선소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들판 되려면 마을을 관광벨트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조선소는 이전(移轉)을 해야 될 겁니다. 가덕도에 수리조선소 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시화된다면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넓은 곳에서 제대로 한 번 사업을 해보고 싶은 저 같은 사람에게 넓은 땅을 주고 맘껏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선업 자체가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책과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이전해서 지금의 영도조선을 더욱 키워보고 싶습니다.

더 큰 꿈을 갖고 나아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리조선일이 제 천직인가 봅니다. 배를 한 대 수리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갯내음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대평동에서 새벽에 고기 하역할 때도 남들은 비린내가 나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갯내음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쭉 천직이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청춘을 바친, 큰형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영도조선을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예술가를 만나다

아트벤치 프로젝트 2부.

마을버스종점 로터리 조형섬 작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 쓰던 것이나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해 설치 작품이나 영상 작품을 만들고 있는 조형섭입니다.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깡깡이마을에 처음 오신 건가요? 마을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

깡깡이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이곳이 부산이구나’라고 느낄 만 한 매력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 한 낮의 일상들이 항구 주변으로 새겨졌다가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금세 사라지는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오래된 적산가옥이나 전봇대처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보며 이 동네는 현재와 과거가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닻과 자개농을 활용한 아트벤치 작품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영감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거창하구요. 마을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료나 이야기를 섞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깡깡이마을에는 다양하게 재배치 시켜볼 수 있는 재료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에 ‘닻’다>라는 제목이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나요?

닻이라는 재료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닻이 가진 의미와 제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의자가 주는 짧은 휴식의 순간을 사색의 경험으로 연결해 보려는 시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언어유희인 셈인데 혹시나 맞춤법이 틀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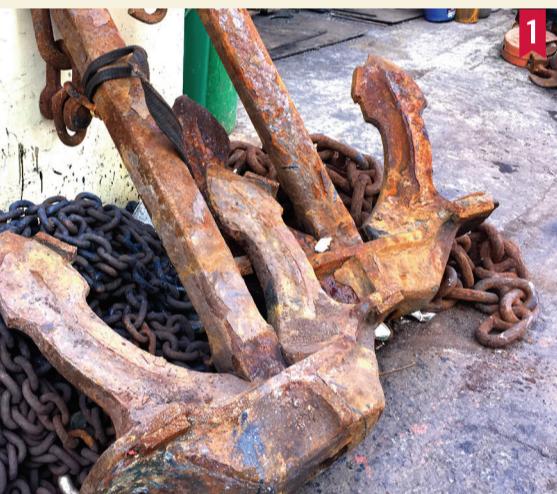
마을에 있는 공업사에서 작품을 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가님께도 그 분들께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본의 선순환인거죠. 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돈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금은 영도에서 일하시는 주민 분들의 주머니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그 돈의 일부가 다시 영도의 주민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사가 작품을 설치하는 장소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불필요한 운송비나 과도한 출장비가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꽃은 지역 분들과 함께 결실을 만들고 나누는 것이며,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작품을 보며 분명 뿌듯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깡깡이예술마을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요?

이전에 작업했을 때는 한정된 시간, 미비한 기획, 도움 주실 분들이 부족해 마을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까진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무국이 있었고,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마을 운영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미리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 분들과 조그만 협력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다른 프로젝트도 잘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 조형섭 작가의 아트벤치, <시간에 ‘닻’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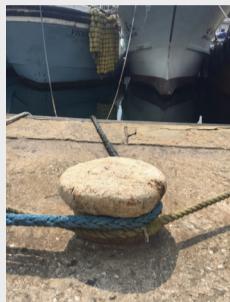
3

1. 아트벤치에 사용한 닻
2. 빈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개농 모습
3. 자개농을 활용한 의자 장식



대평동 용어 사전 계선주

[繫船柱, ①mooring post ②bollard ③bitt]



▲ 직주



▲ 곡주



▲ 깡깡이마을의 계선주

감수·문호성 (선박설계기술사)

배가 육지에 다다르면 벗사공은 육지 쪽으로 뱃줄을 '휙'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 동그랗게 매듭지어진 뱃줄 끝을 붙잡아 부두에 설치된 기둥에 걸고 단단히 줍니다.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되시나요? 부산(또는 깡깡이마을)에서는 가까운 부두에 가기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녀석이지만 그 이름이 정확히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두에 배를 뱃줄로 묶어두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을 '계선주(繫船柱)'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볼라드(bollard) 또는 비트(bitt)라는 말로 구분해서 쓰는데요. 보통 원통 형태의 계선주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한 것은 '볼라드', 하나의 말뚝 형태의 계선주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계선주 중에서도 큰 것은 대개 주강으로 만들며 작은 것은 주철, 강판,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듭니다. 모양은 머리가 일직선인 게 있는가 하면,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끝이 구부정한 모양의 계선주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직선형태의 직주(直柱)는 뱃머리가 닿는 부분에, 머리를 굽힌 형태의 곡주(曲柱)는 직주 사이에 보조용이나 소형 선박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깡깡이마을의 계선주는 아주 제멋대로 생겼습니다. 잔뜩 녹이 슨 것처럼 붉은 색인데 오랜 세월 덕분인지 표면이 맨질맨질한 게 눈에 띕니다. 어떤 계선주는 윗부분이 떨어져나가 속에 철로 된 기둥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깨져있지 않았다면 돌로 만든 녀석인 줄 알았을 겁니다. 계선주 하나에 뱃줄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상 걸쳐놓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깡깡이마을은 과거부터 부산의 주요 포구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1930년대 중반, 일제에 의해 마을이 매립되면서 지금처럼 두 곳의 물양장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계선주 중 대부분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80년 이상 된 유물이 부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정밀공업사

대표 전동배

대평동 유일 청정기(PURIFIER) 부품 제작·판매
선박기관부품 제작·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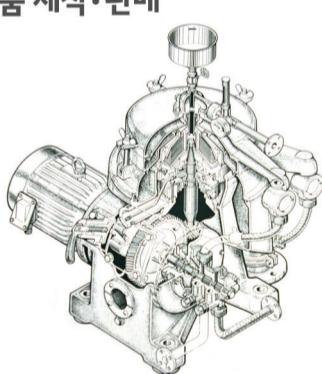
TEL. 051) 413-1820

FAX. 051) 413-1821

H.P 010-4046-1891

E-MAIL. jundb1892@hanmail.net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20번길 9



문인화반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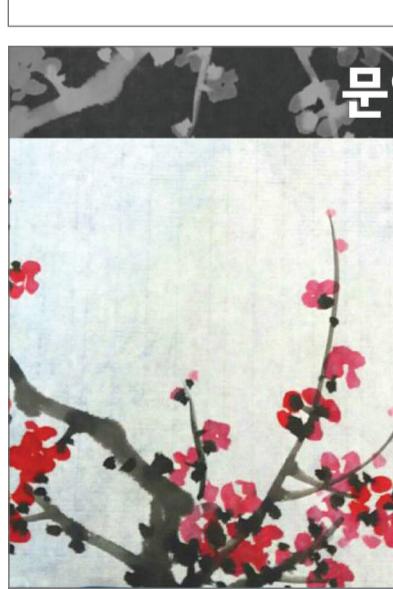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목요일 오전 10시~12시

회비: 월 3만원

장소: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5층
(영도구 대교동1가 143-2)

문의: 010-8489-9541

강사 / 덕원 최명숙 (작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중앙이사)
부산미술대전 및 전국서도민전 심사위원



FOREST HEALING

산림 탐방형 숲 치유 프로그램

"지겨운 워크샵 말고 숲 체험
자연에서 위로를 받는 숲 테라피"

- 기업, 관공서 직무연수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진행)
- 유아, 청소년, 성인(일반) 숲 체험 프로그램
- 태교 프로그램
- 국내·외 올레길 투어 프로그램



네비게이션임플란트

노인틀니전문센터

서울아이 병원치과

네비게이션임플란트 / 노인틀니전문센터

네비게이션임플란트

- ▣ 당뇨, 고혈압 환자도 OK
- ▣ 무절개 수술, 아프지 않아요
- ▣ 수술 후 회복이 빠릅니다
- ▣ 오래가고 튼튼한 임플란트

소중한 당신의
밝은미소를
찾아드립니다.



틀니세척권

사용기한 : 2017년5월31일

서울아이 병원치과

부산은행 영선동 지점(남항시장 사거리) 서울아이병원 7층 T.051-260-8700

*「만사대평」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위 사이즈)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광고를 신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전화 주세요. (051-418-1863)



깡깡이마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구요?

그렇다면 깡깡이예술마을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세요.



STEP 1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kangkangee.com



알아볼깡

한눈에 보는

STEP 2

처음 만나면 통성명은 기본이죠?
<알아볼깡>에서 깡깡이마을의 위치, 인구수 등 마을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마을
숫자로 보는 마을
마을브랜드

STEP 3

과거를 묻지마세요.
하지만 깡깡이마을의 과거는 흥미진진하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따라 깡깡이마을로 과거 여행을 떠나보세요.

깡깡이마을소식
생활문화센터
마을신문

STEP 6

깡깡이마을에서 벌어진 축제, 동아리 활동들이 궁금하신가요?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치셨다면 <깡깡이마을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깡깡이예술마을 홈페이지>
한 번 접속, 열 검색 부럽지 않을 겁니다.

INFO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생활문화센터 201호
ydart2016@hanmail.net

광고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광고, 행사 알림, 회원 모집, 각종 축하 소식(결혼, 돌기념, 고희연 등) 등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정보와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 광고를 싣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